강진군사진회 4인전, '다산과 강진의 사계'

강진군 다산박물관은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박물관 1층 다산갤러리에서 강진군사진회 4인전 '다산과 강진의 사계'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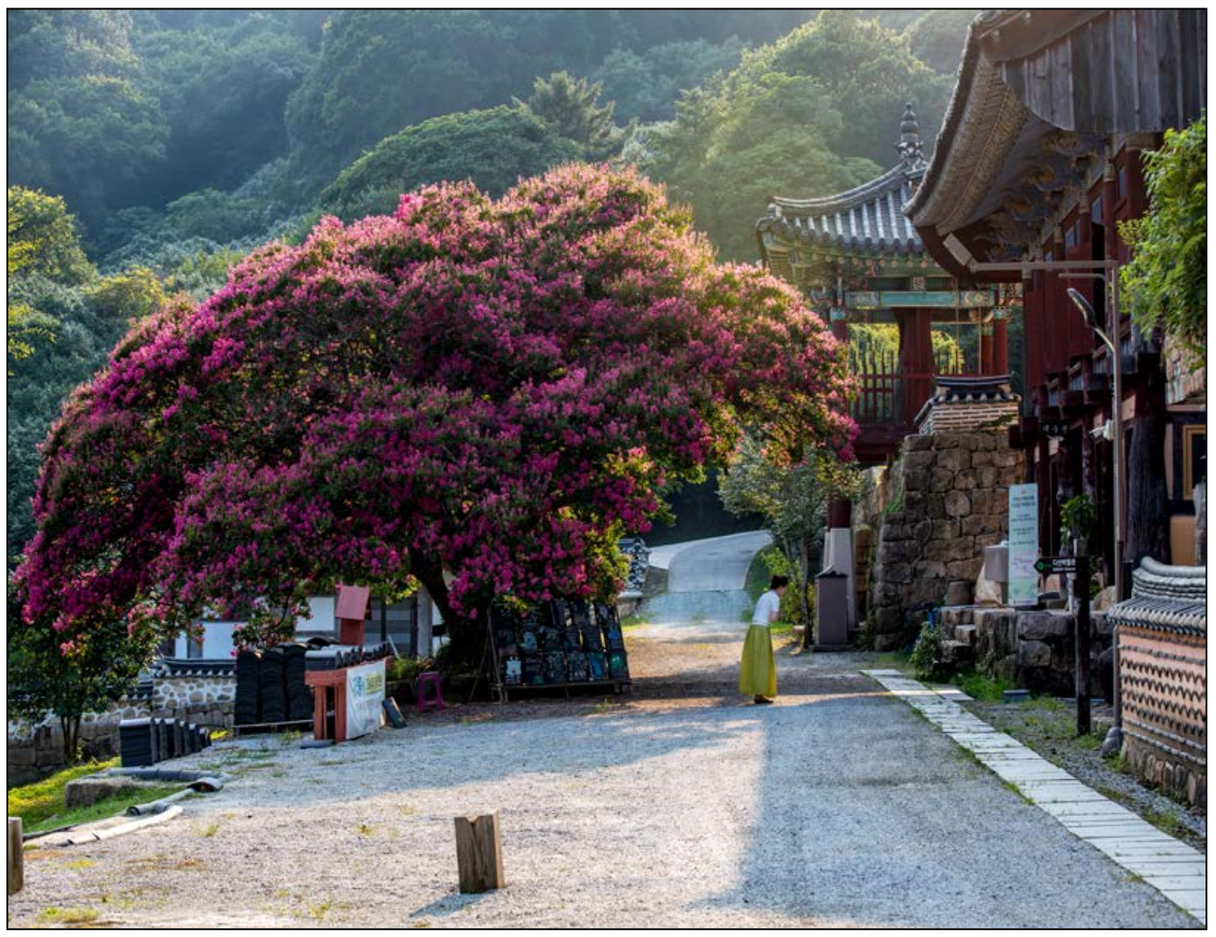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강진군사진회 소속 사진작가 김광섭, 백남태, 이민주, 조민강 등 4명이 참여해 강진의 역사와 자연경관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네 작가는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봄·여름·가을·겨울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강진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전시는 강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사계절의 시선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작품으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시절 기거했던 역사적 공간인 '사의재'와 다산의 제자인 이학래 선생의 생가가 있는 목리 앞 '탐진강 전경' 등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여름을 붉게 물들이는 '백련사 배롱나무'와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강진만생태공원' 등 지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도 만나볼 수 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색채와 분위기를 담은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은 강진의 새로운 매력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다산박물관을 찾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선제 다산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고향 강진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사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자연경관을 사진으로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며 "네 작가가 포착한 강진의 사계절 풍경을 감상하며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강진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산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를 마련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운재 기자



조민강 다산과 백련사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홈페이지에 '바뀐 지번 바로찾기' 기능 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군민들이 토지의 지번 변경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바뀐지번 바로찾기'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경지정리사업 3만 8,273필지, 지적재조사사업 3만 5,947필지, 기타 3,313필지 등 총 7만 7,533필지다. 이용자는 읍·면·리와 지번을 검색해 사업 시행 전후의 지번과 사업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무안군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지적(부동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제공하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과 함께 지번 변경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기능 추가로 변경된 지번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문의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민원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용운 기자

목포, 죽교동 성인문해교실 배움의 결실 나눠



목포시청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죽교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센터 앞 게시판에 2026 목포항구축제에 출품했던 성인문해교실 작품 3점을 게시했다.

이번 전시는 수강생들의 배움의 결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작품 전시를 통해 학습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죽교동은 앞으로도 성인문해교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배움의 기쁨을 나누고, 주민 간 소통과 공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죽교동 관계자는 "수강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작품이 배움의 기쁨을 나누고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수강생들의 작품을 꾸준히 전시해 배움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성인문해교실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우고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 예술인들의 열정과 재능, 국향대전서 선보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군수 이남오)이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기념해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예술제를 열고 열정과 재능을 선보였다. 함평군은 1일 "지역 7개 예술단체가 참여한 '함평예술제'가 지난달 31일 함평엑스포공원 주무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평지회(회장 박행님)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과 역량을 알리고, 군민과 관람객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함평국악협회, 함평음악협회, 함평연예예술인협회, 함평문인협회, 함평군합창단, 함평나르다예술단, 함평미술인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무대에서는 한국무용과 남도민요, 현악 앙상블과 칼림바 앙상블, 트로트와 발라드, 시 낭송, 합창과 중창, 타악과 판소리 등 장르별 공연이 이어졌다.

함평미술인협회는 예술 체험 공간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미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의 공연 무대와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경험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4-H연합회, 제설용 모래주머니 600여 개 배치

영암군4-H연합회(회장 김배홍)는 지난 28일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제설용 모래주머니 600여 개를 지역 내 45개소에 배치했다. 이번 활동은 폭설과 빙판길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서 모래주머니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회원들은 도로와 주민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모래주머니를 배치하며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영암군4-H연합회는 올해 빗물받이 정비와 도로 반사경 청소, 보행보조기 반사테이프 부착 등 생활밀착형 안전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김배홍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안전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설용 모래주머니 배치는 올해 추진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겨울철 주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의미를 더했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기철 기자

신안, 하남시 청소년과 1004섬서 우정 나눠

신안군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신안군 일원에서 하남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2026년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및 청소년 교류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안 청소년 Pick! 1004섬 사용설명서'를 주제로 신안군과 하남시 청소년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 간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소통·협력 능력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30일에는 암태면 오도선착장에서 요트 체험을 하며 신안의 아름다운 바다를 만끽했다. 이어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두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들이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며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박성태 기자

